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특강 Ⅲ
2025.6.18(수) 그랜드하얏트 제주

전공자율선택제, 기초학문, 그리고 교양교육

윤승준(단국대학교)

목차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3.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상생의 길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 시행

- 2024.1.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빅 블러(Big Blur) 시대, 융합인재 양성 필요

-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50%인 4,410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비의 60%인 3,426억원

• 평가의 주안점

-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내 체계 구축 중점 평가

- 양적 요소(수혜 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 혁신 과제의 적극성 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간의 협의 등 평가

-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
-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추진 성과와 전략을 평가

무전공 선발 늘린 대학 가산점 더 준다

모집인원 25% 넘기면 10점→15점
재정 지원 늘려 융합인재 양성 속도

교육 당국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공 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린 대학에 최대 15점의 재정 지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5점 높은 것으로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융합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7개교에 4243억 원이 투자된다. 교육부는 올해도 무전공 확대 등 교육 혁신에 나선 대학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무전공 모집 인원이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25%를 넘길 경우 최대 가산점 10점을 부여했는데, 최대 1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성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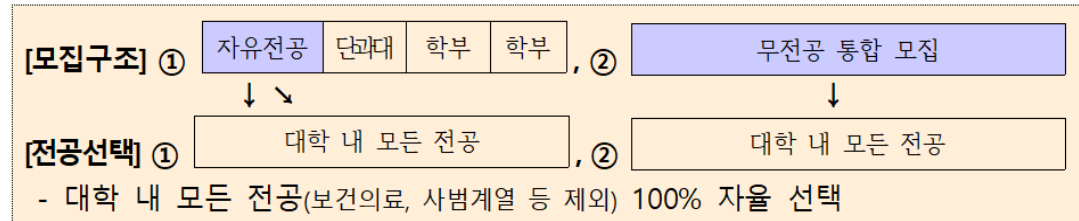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유형 및 모집 현황
 - 수도권 대학 51개교와 국립대학 22개교 조사 결과
 - 전체 모집 인원의 28.6%에 해당하는 37,935명을 전공자율선택제로 모집
 - 2024년도 9,925명(6.6%)에 비해 28,011명 증가

국립대				수도권대			
유형 1		유형 2		유형 1		유형 2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94	3,436	2,113	8,851	2,296	11,408	5,222	14,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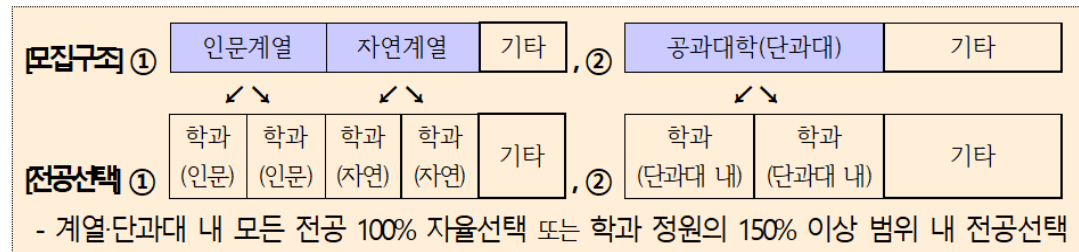
- 대교협, 「2024 대학교육 현안 분석 자료집」

(유형1)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자율 선택



(유형2)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

- *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모집하는 경우도 인정
- 다만, 혁신성·적절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에서 반영 가능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전공자율선택제 안착을 위한 대학별 대응 (교육부, 2025.3.28.)

전공 쓸림 대응	진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챌린지스퀘어를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관리(성균관대) / Lions 멘토링 팀(신입생 30명 단위 1명의 Academic Advisor 배정) 운영(한양대 ERICA) / 인공지능 AI 프렌즈,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전북대) / AI 진로 데이터 구축 활용, 학생 코디네이터 밀착 지도(부산대) / Academic Advisor 상주, 전공 설계 상담 지원(서울대)
	학사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학사학위(26개) 개발 운영(군산대) / 다전공 제도(최대 3개까지) 도입(서강대) / 전과 횟수 제한 폐지(서울과기대) / 다전공 이수 교수제 운영(부경대) / 복수 학과(JA) 단과대학 소속 교원 확대(창원대)
기초학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마니타스 칼리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융합형 현장 프로젝트 교육과정 도입(경희대) / 인문학 중심의 교과·비교과 인증제 활성화(이화여대) / 기초·교양과목 이수 학점 확대, 기초·실용 학문 간 융합학과 운영(국립창원대)
소속감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부트캠프 운영(한양대) / 기숙형 프로그램(Residential College)과 연계(연세대) / 100인 선배 멘토단 구성 운영(가톨릭대) / 신입생 대상 Learning Community 구성 운영(숙명여대)
에듀테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경험관리 플랫폼(LXP) 개발(한양대) / AI 기반 에듀테크 학사지원 통합 플랫폼(SMEDU) 구축(상명대) / Meta-HyFlex 첨단 인프라 구축(숭실대)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에 따른 우려
 -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도 도입
 -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학생 부적응과 중도탈락 우려
 - 전공 쓸림 현상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
 -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

- 기초학문 고사에 대한 우려
 - 취업 중심의 전공 선택
 - 기초학문 분야 지원 감소, 구조 조정

명시대, 올 철학·수학과 모집 폐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부족난 허덕
 “재정 이유 폐과 추진 적절하지 의문”

전임교수가 1~2명에 불과해 이들이 퇴
 임하면 사실상 학과가 폐지되는 것 아니
 나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에서
 전임교원 채용을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
 은 재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
 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하나(22)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회
 장은 “학교의 발전 방향이 취업률이나
 인공지능(AI), 4차 산업 등에 맞춰져 있
 다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며 “대학은 취

대학 혁신 취지라지만... “취업 잘되는 과 몰릴땐 기초학문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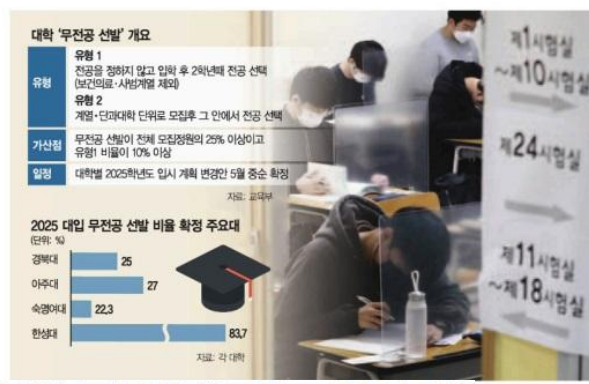
대학 혼드는 ‘무전공 확대 시행’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공 없이 학생
 을 모집하는 무전공 입학 제도가 국내 대
 학에서 확대 시행되면서 학내 갈등이 고
 조되고 있다. 기존에 무전공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들의 경우 선발 비중을 높이고
 채용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
 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
 다.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25% 비율
 을 채우지 못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교육부가 쓰어 올린 무전공 신선편
 이 국내 대학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
 다. 다만 정부 주도로 급격하게 추진되
 는 만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과
 함께 기초 학문 고사, 대입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
 하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통해한 자
 율전공학부도 신입생을 뽑아온 경북대는
 올해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경북대 선발 비중 25%로 높이고
 아주 27%·숙명 22.3% ‘첫 도입’
 대학 이달말까지 비율 확정해야
 선별된 보장·융합인재 목적에도
 학문 다양성 훼손 등 문제점 지적
 교육부 ‘제도안락’ 연구용역 착수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 신입생
 을 뽑아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속도 조정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많아지자 올해 초 방향을 바꾼 하한선을
 앉았다. 대신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비율
 에 따라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 사업
 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학
 들은 이달 말 발표할 입시 요강에 무전공
 선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각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 학문 고사 등
 무전공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기술직 정책
 연구를 종료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각 대학
 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융합 인재 양성, 학생들의 전
 공 선택권 확대, 교수·학과 간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무전공
 선발 비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
 해 교육부는 학생 선발은 유형2로, 운영
 는 유형1로 할 경우 1로 인정하기로는
 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이라는
 무전공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
 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
 한 것이다. 전공 특성상 선수 과목 이수
 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대학이 2학년 전공 선택 전 특정 과목 가
 기 위해 1학년 때 전공 디딤돌 과목을 이
 수하도록 한 것도 수용했다. 다만 학생들
 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디딤돌 과목 수강에 제한이 있어야 한
 다. 대학들은 이같은 교육부의 단방적인
 운영 방침으로 인기 학과 쓸림 현상이 완
 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 각 대학들이 무전공 관련 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참여 대학 수, 선발
 비율에 따라 올해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무전공 도입 인
 원이 늘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지원 쏠림
 은 물론 다른 대학 합격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성재용 기자

간판만 보고 진학... 대학생 절반 “전공변경”

서울교육청, 2059명 대상 설문
 대학 선택 1순위 요인은 “명성”
 응답자 43%는 “재수 계획 중”

‘좋은 대학 = 좋은 직장’ 인식에
 20대 적성과 진로 찾기 늦어져



■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전
 공 변경을 계획하는 것으로 10일 나타
 났다. 이 중 약 44%는 다른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를 고려하는 등 상당수 학생이
 현재 재학 상황에 불만족을 표하고 있었
 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이
 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면
 서 20대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위
 한 ‘뚝 찾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서교
 연)의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진로·
 진학조사 결과분석 및 진로정책 효과 검
 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사패널 2059명 중
 대학 진학자 1413명의 52.4%가 “전공
 변경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진
 학자의 73.8%가 “희망한 전공계열로

진학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중 다수 대학으로의 재수를 계획하는 경
 우(중복 응답 가능)가 43.9%로 가장 많
 았고, 현 대학에서 복수·부전공을 계획
 하는 경우가 40.9%, 타 대학 편입 계획
 이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학 진
 학 후 현재 대학·전공에서의 취업 등 진
 로 방향 설정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전
 공 변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진학 준비자
 (722명)들에게서도 관측됐다. 대학 선
 택 고려 요인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
 답자의 51.8%가 ‘대학의 명성’을 꼽았
 다. 적성 및 흥미(28.8%), 취업
 (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출신 고
 교 유형별로 달랐는데, 인문계고 출신은
 대학의 명성(53.6%)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직업계고는 적성 및 흥미
 (39.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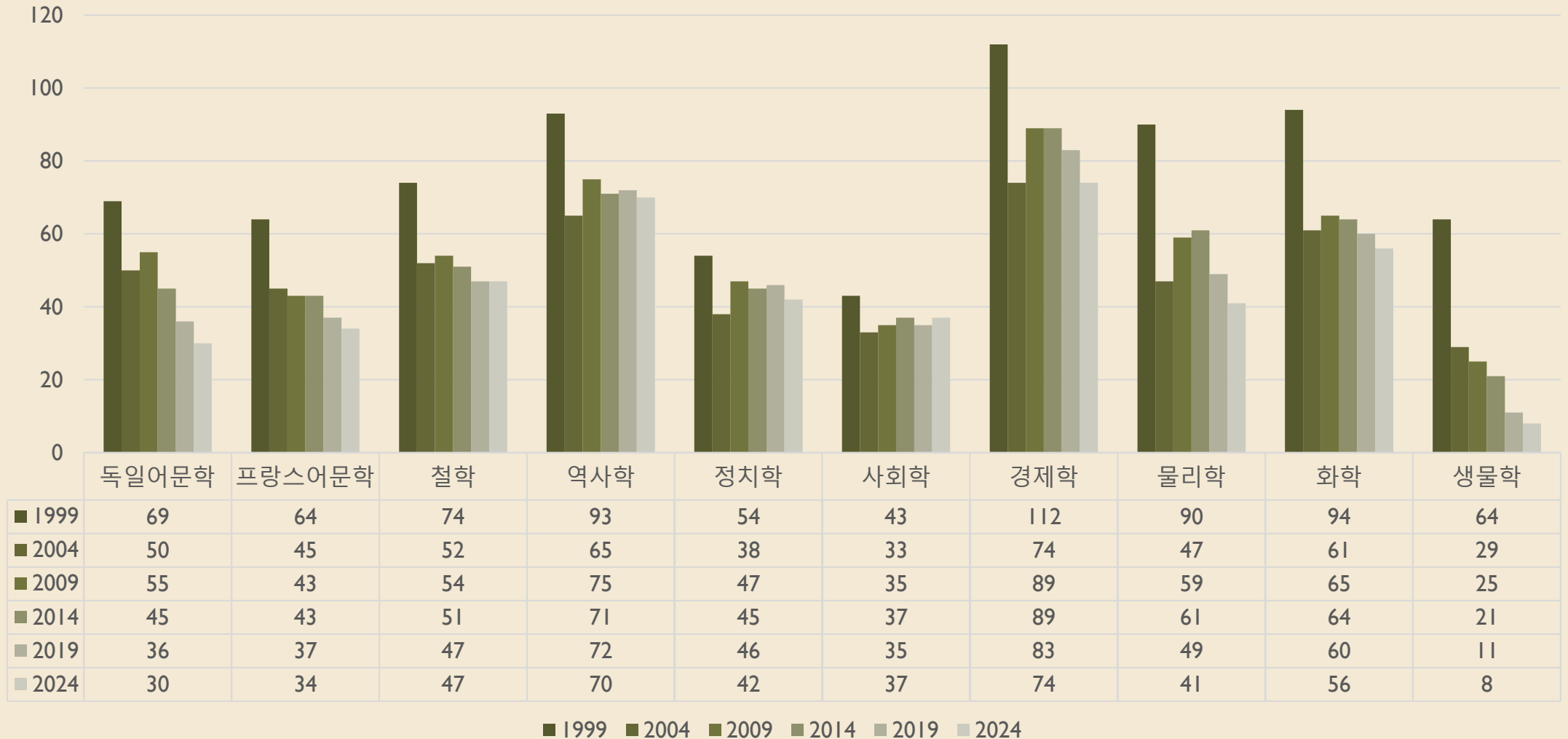
학 준비자의 68.3%는 “대학 입학을 위
 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
 히 대입 준비를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0%가
 1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중 월
 평균 2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15.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
 월 19일부터 약 30일 동안 진행됐다.
 2021년 고이었던 학생들의 졸업 취해
 를 추적한 종단연구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대학
 의 명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이유로
 대해 “기회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이는 취업과 연결돼 개인살
 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진
 학을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이 자신의 적
 성·흥미보다 대학의 명성의 영향을 결정
 중요 순위로 고려하는 현상으로 나타났
 다”고 분석했다. 김현이 기자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한국 대학의 기초학문 학과 수 변화 추이

- 손동현(2024), 「대학교육 기초학문 육성방안 연구」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전공자율선택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
 - 1973년 실험대학, 1995년 학부제, 2009년 전공자유학부
 - 2025년 전공자율선택제

제도 도입의 취지	실패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전공탐색 기회 제공• 자유로운 진로탐색 독려• 다양한 학문생태계 경험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 자유교육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제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되는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 정책에 대한 불신• 제도의 본질적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교육 외적 시도: 자유교육의 이념 vs. 대학 구조조정• 인기 학과/전공 쏠림 현상: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운영되는 전공 탐색 및 지원 프로그램• 교육 혁신에 둔감한 연구 중심의 대학 풍토와 관행•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에 끌려가는 대학의 수동적 태도

- 이수정(2024), 「교육학자가 바라본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과제」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기초학문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교양교육의 방향**
- 취창업교육, technical skill 교육에 집중된 교양교육의 현실 개선 필요

구분	자유학예교육	기초문해교육	체험소양/취창업/계열기초교육	계
학점	12.72학점	10.19학점	11.82학점	34.60학점
비율	37.10%	29.65%	32.72%	100.00%

- 김선영 외(2023),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 **Technical skill 중심 교육에서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한 Soft skill(비판적 사고력,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타문화의 이해와 협업 등)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기초학문 기반 T형(주제적 수평 통합, 수직적 수준 심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 및 교양교육 체계 재구조화**
- **‘기초학문 기반의 통합적 차원의 토대교육’ 강화:** 특정 학문, 전공 기반의 교양 교과목이 아닌 파편화된 지식을 통합하고 학제를 횡단할 수 있는 주제로 교양 교과목 재구성

- 하연섭(2024), 「대학전공자율선택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

1.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기초학문

● 전공자율선택제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2025.2)

1. 전공 탐색 및 전공 선택 지원체계
2. 입학 후 소속감 제고
3. 교육의 질 확보 방안
4. 교양교육 활성화
5. 학문의 다양성 보장

● 2025~27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보고서 (2025.4)

- “3.4.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 기초학문 보호 및 교양교육 지원 성과
 - 연도별('25~'27) 추진 계획
 - 대학에 특화된 중점 추진 핵심과제 1개 선정 기술
 -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세부과제는 계획서에 포함

전공자율선택제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 '25. 2. 3.>

1. 전공 탐색 및 전공 선택 지원

○ 전문성 있는 학사지도체계의 구축

- 전문성 있는 학사지도체계가 구축되어
- 학사지도체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 해당 조직에 관련 학사지도교수(acad)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
- 학사지도를 위한 교내 관련 조직 간
- 학사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간 협업체
- 학사지도를 위한 교내 정보 시스템이

○ 전공자율선택제에 관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 등에 전공자율선택제 관련 구
- 고려 사항 등이 공개되어 있는가?
- 입학설명회 등에서 전공자율선택제에
- 대학 유튜브, SNS 등에 전공자율선택

○ 입학 전 지원체계의 구축

- 입학 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선
- 입학 전 신입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구

4. 교양교육 활성화

○ 전공자율선택제의 핵심으로서의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

-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영역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자유학예교육이 전공자율 선택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가?
-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과 진로 설정을 위한 도움을 얻고 있는가?

○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교양기초교육 전담기관이 독립적인 교과 구성 및 운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 교양기초교육에 필요한 재정과 시설이 그 중요성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가?
- 교양기초교육 교수진의 연구 및 교육역량 증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초학문 분야 보호를 위한 기초 및 전공 교육 개편 방안

- 전공 교육 내용과 기초교육 내용의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학생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교양교육 내용 및 교수법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초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T/O 배정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과 지원

- 교양기초교육이 그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3.4.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

가. 세부 추진 내용(과제) **핵심**

나. 세부 추진 내용(과제)

【작성방법】

1) 학생들의 기본적 소양 함양,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기초학문 보호 및 교양교육 지원 성과* 및 연도별('25~'27) 추진 계획**** 등을 기술(필요 시 추진 배경 및 목표 포함)

* 성과 :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 추진 여부가 확인가능한 내용(예: '25학년도 필수 교양과목 신설)

** 계획 :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 성과, 그동안 대학의 노력, 대내외 환경 변화 및 현황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25~'27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 근거(내부규정 반영, 결재문서 등 실현 가능성을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제시('25년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교육과정 혁신, 융합교육, 기초학문-교양교육 간 연계 등에 대하여 작성

2) 대학에 특화된 중점 추진 **핵심과제**를 1개 선정하여 우측에 **핵심** 표기

3)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세부과제는 향후 '25년 자율혁신계획서 제출 시 포함

4) 세부내용(과제) 개수 제한 없음

5) 그림, 도표 등 활용 가능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5)

https://www.konige.kr/notice/event_view.php?bbs_cd=2025050800002&pageno=1&stx=&bsearch=&list_num=8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7-qLdLUGc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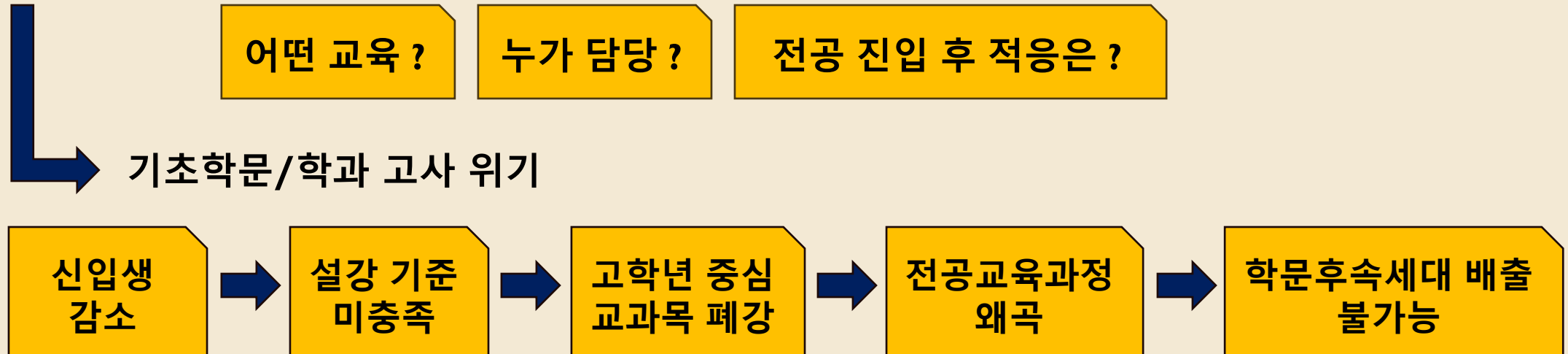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제 1단계
교양교육 과정 3개 혁신 모델(가안)

2025. 4. 23.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모델 개발의 배경: 고등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후속 대책 필요

- 전공자율선택제 → 자율전공 입학생에 대한 교육 방안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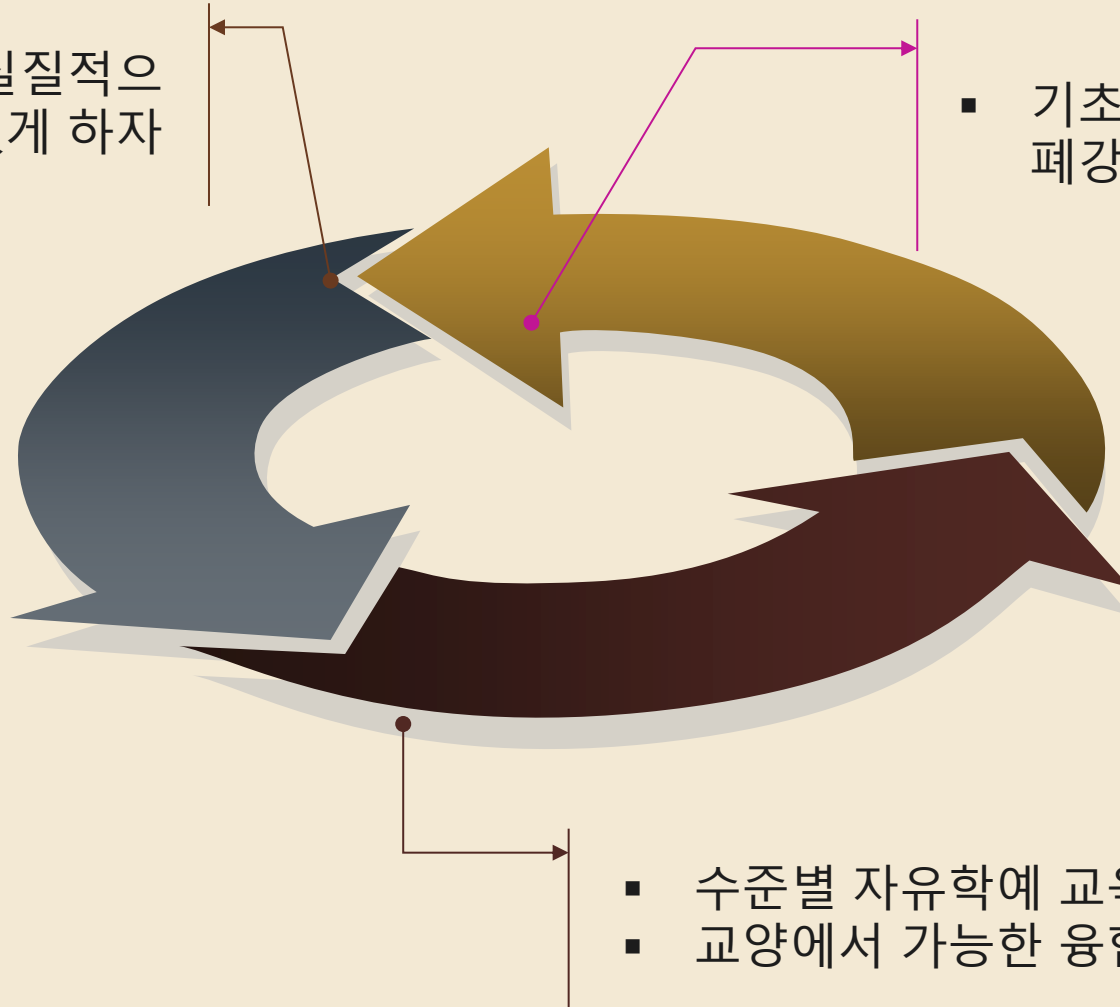
-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 교양교육 배제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모델 개발의 출발점

- 전공자율입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전공을 탐색할 수 있게 하자

- 기초학문 학과의 전공 수업이 폐강되는 것을 막아 보자



- 수준별 자유학예 교육을 구현해 보자
- 교양에서 가능한 융합교육을 만들어 보자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모델 개발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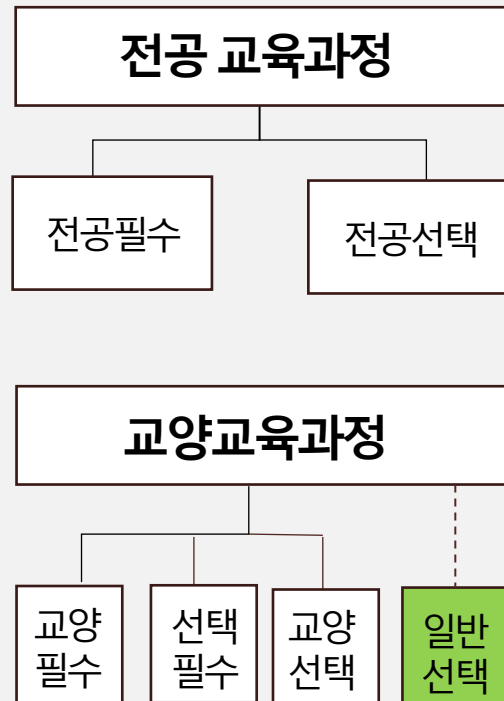
- 전공자율 입학생에게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전공 탐색 기회 제공
- 기초학문 분야 학과/전공 개설 확보로, 기초학문 분야 학과/전공의 유지 도모
- 교양 교과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유학예 교과목 다양화
-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학제간 융합 교육의 기반 마련
- 교양교육과정 일원화로 효율적인 학사 행정 운영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대학 교육과정 체계 개선(안)

현재

대학 교육과정 체계 (2원 체계)



교양교육과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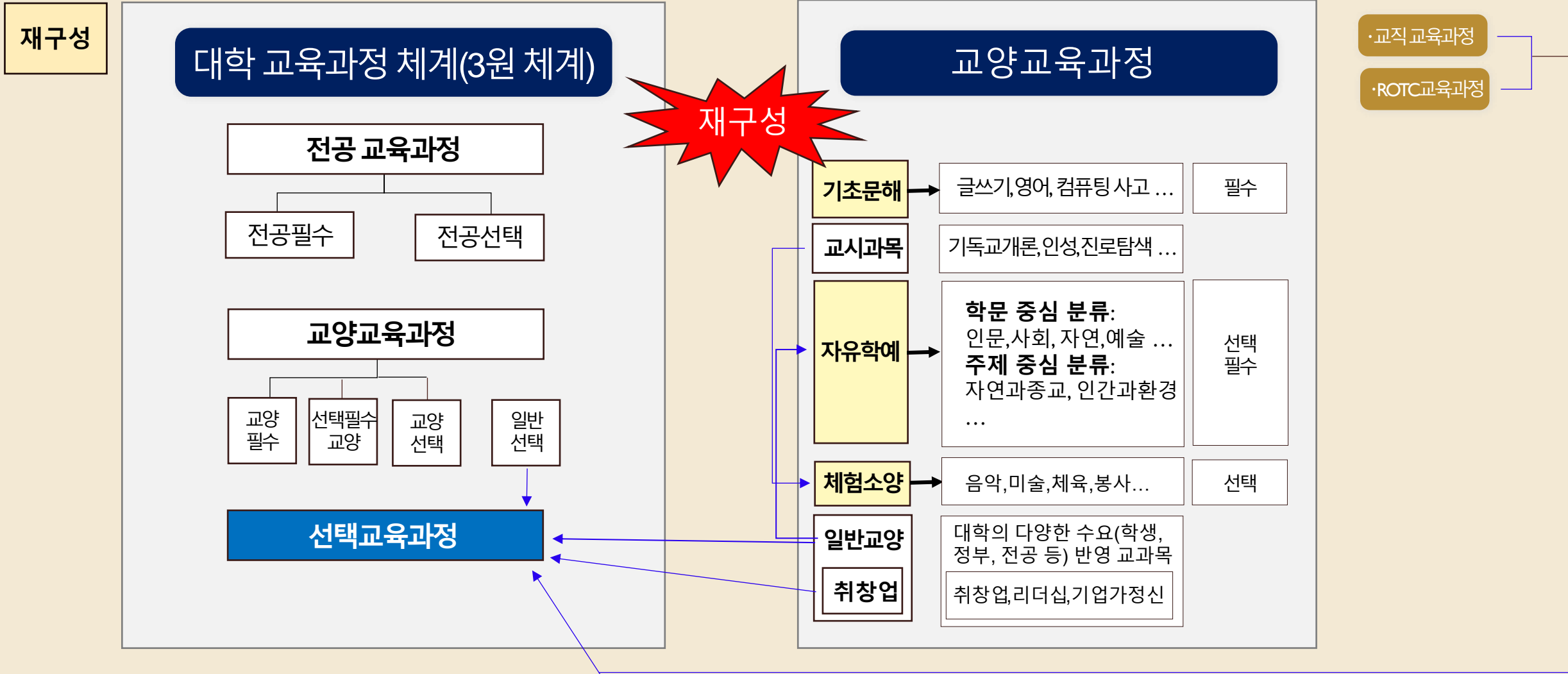


·교직 교육과정

·ROTC교육과정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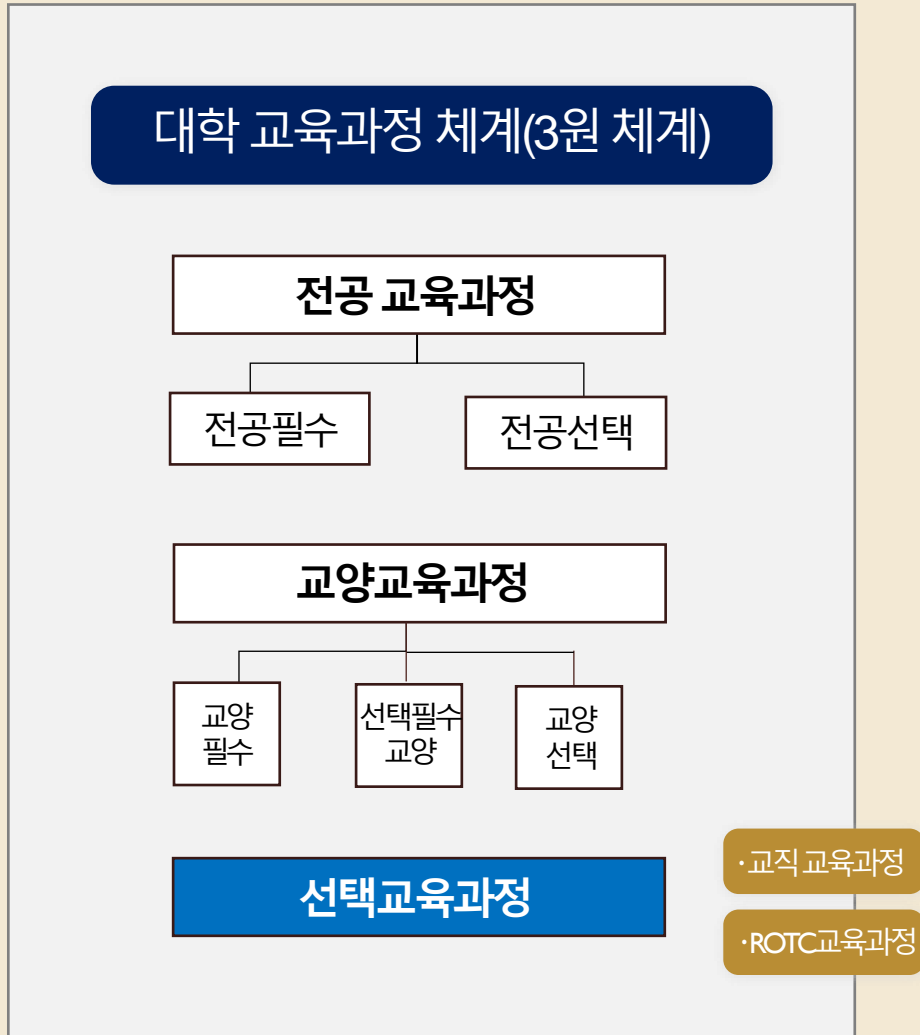
● 대학 교육과정 체계 개선(안)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대학 교육과정 체계 개선(안)

개선안



대학 교육과정 체계 개선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기초문해	글쓰기, 영어, 컴퓨팅 사고 ...	필수
자유학예	학문 중심 분류: 인문, 사회, 자연, 예술 ... 주제 중심 분류: 자연과종교, 인간과환경 ...	선택필수
체험소양	음악, 미술, 체육, 봉사, 교시과목	선택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1 [자유학예 확장 모델]

전공자유선택제 | 유형, II유형 적용 가능 모델



'기초학문 학과'에 편성된 4개의 전공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의 자유학예 교과목으로 이중설강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1 [자유학예 확장 모델]

영역	영역구성	권장이수기준 및 학점
기초문해	의사소통A, 의사소통B, 정보문해, 비판적 사고, 양적추론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 필수 이수 (12~15학점)
자유학예	인문A, 인문B, 사회, 자연A, 자연B, 예술	6개 영역 편성 및 균형 이수 (18학점)
체험소양	음악, 미술, 체육, 봉사, 교시과목	선택(0~3학점)
계		30학점 ~ 36학점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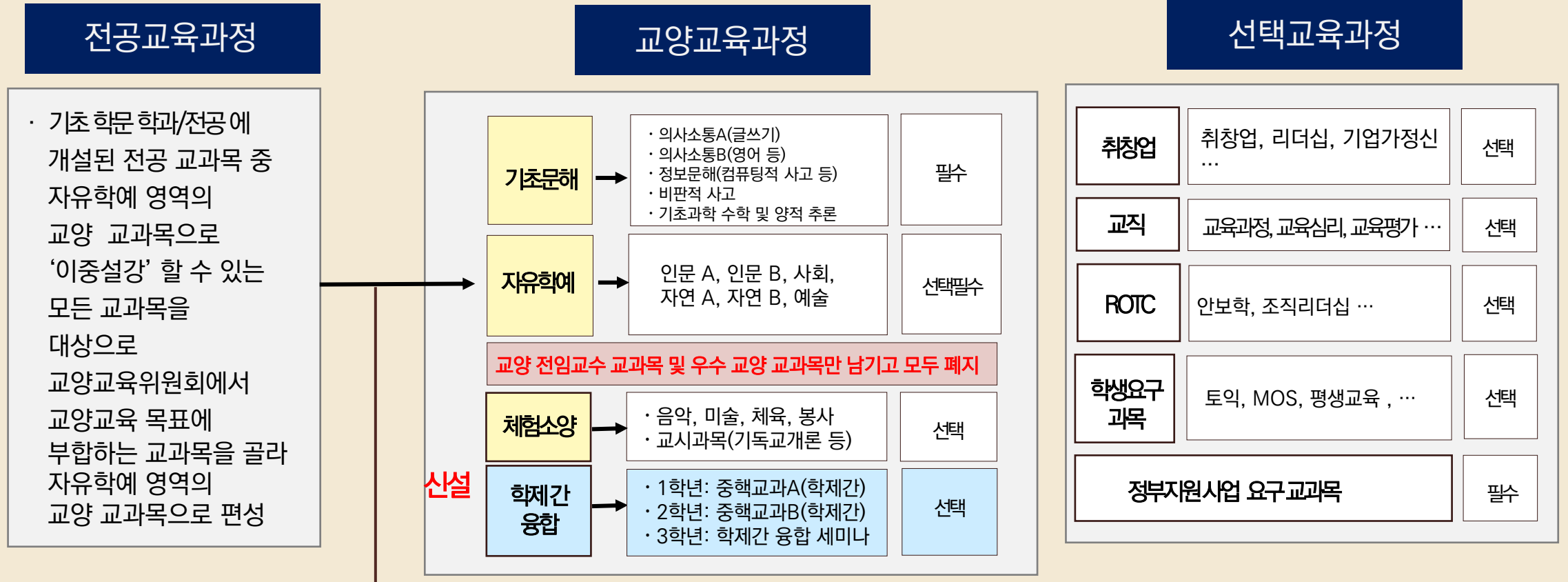
● 교양교육과정 모델 1 [자유학예 확장 모델]

- 기존 교양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도 교양 교과목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장 도모
- 기초학문 전공 교과목 수강을 통한 기초학문 분야 접근 기회 제공
(전공 선택 시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비 선택 시 '교양 선택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
- 기초학문 전공 교과목 설강으로 최소한의 전공 교육과정 유지
- 교양 자유학예 교과목 수 증가로 학생 학습 선택권 확장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2 [기초학문 강화 모델]

전공자율선택제 | 유형, II유형 적용가능 모델



교양교육과정 자유학예 영역(선택필수)의 학점 이수는 기초학문 분야 학과/전공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 가운데 이중설강된 교과목으로도 이수할 수 있게 함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2 [기초학문 강화 모델]

영역	영역구성	권장이수기준 및 학점
기초문해	의사소통 A, 의사소통 B, 정보문해, 비판적 사고, 양적 추론	5개 영역 중 4개 이상 필수 이수 (12~15학점)
자유학예	인문 A, 인문 B, 사회, 자연 A, 자연 B, 예술	6개 영역 편성 및 균형 이수 (18학점)
체험소양	음악, 미술, 체육, 봉사, 교시과목	선택(0~3학점)
학제 간 융합	중핵교과 A, 중핵교과 B, 학제간 융합 세미나	2개 이상 이수 권장(0~6학점)
계		30 ~42학점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2 [기초학문 강화 모델]

- 기초학문 전공 교과목 수강을 통한 기초학문 전공 접근성 강화
(전공 선택 시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비 선택 시 '교양 선택필수 이수학점'으로 인정)
- 기초학문 전공 교과목 설강으로 최소한의 전공 교육과정 유지 및 전공 교과목 경쟁력 강화
➡ 학문후속세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교양 교과목 인식 개선으로 교양교육 위상 제고
- 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사고 강화
- 기초학문 분야 학과/전공 교과목의 공유로 교양 공유대학의 새로운 비전 제시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3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 모델]

전공자율선택제 | 유형, II유형 적용가능 모델

전공교육과정

· 기초 학문 학과/전공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자유학예 영역의 교양 교과목으로 '이중설강'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학과/전공별로 1학기에 2과목, 2학기에 2과목 이내에서 지정

*교양교육위원회의 역할: 심의, 권고

신설

교양교육과정

기본 교양교육과정

기초문해	· 의사소통A(글쓰기) · 의사소통B(영어 등) · 정보문해(컴퓨팅적 사고 등) · 비판적 사고 · 기초과학 수학 및 양적 추론	필수
자유학예	인문 A, 인문 B, 사회, 자연 A, 자연 B, 예술	선택필수
[기존 교양 교과목 유지]		
체험소양	음악, 미술, 체육, 봉사, 교시과목	선택
세미나 교육	· 세미나 I: 나는 누구인가? · 세미나 II: 사회 · 국가 · 세계	필수

심화 교양교육과정

2학년 중핵	· 역사와 문명 I · 역사와 문명 II · 고전과 21세기 I · 고전과 21세기 II	선택필수
3학년 학제 · 융합	· 혐오와 갈등 · 인문적 사유와 예술적 상상력 · 세상을 바꾼 과학적 실험들 ·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	선택필수
4학년	· 캡스톤 디자인 I · 캡스톤 디자인 II	선택필수

예시 1

선택교육과정

교시과목	필수
취창업	필수/ 선택
학생요구 과목	선택
정부재정 지원사업 요구 교과목	필수/ 선택

배분이수과정

중핵과정

2학년 진입 시 제1전공 선택 100% 보장, [조건] 심화교양교육과정 필수 선택, 교양학사(가칭) 학위 수여 가능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3 [자유학예 교육(Liberal Arts Education) 모델]

심화 교양교육과정

예시 2

2학년	② 중핵교과: 학문 분야별 심화학습(2~4과목) • 인문학·예술학 분야: 대학이 지정 또는 개발한 고급과정 세미나 1·II • 수학·자연과학 분야: 대학이 지정 또는 개발한 고급과정 세미나 1·II • 사회과학 분야: 대학이 지정 또는 개발한 고급과정 세미나 1·II
3학년	③ 학제간 코스: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문제 분석, 통합적 사고 개발 • 대학에서 개발한 테마 트랙: 인문, 사회, 자연 + 프로젝트 (1~2과목) • 자신만의 테마 트랙: 인문, 사회, 자연 + 프로젝트 (1~2과목)
4학년	④ 캡스톤 1·II: (교양 + 전공 1 + 전공 2) 종합 독립 프로젝트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3 [자유학예 교육 모델]

영역		영역구성	권장이수기준 및 학점
공통 과정	기초문해	의사소통 A, 의사소통 B, 정보문해, 비판적 사고, 양적 추론	12~15학점
	자유학예	인문 A, 인문 B, 사회, 자연 A, 자연 B, 예술	18학점
	체험소양	음악, 미술, 체육, 봉사, 교시과목	선택(0~3학점)
	세미나 교육	나에 대한 탐구, 세상에 대한 탐구	6학점
	소계		36~42학점
심화 과정	중핵 코어 교육	인문·예술 I, II, 수학·자연 I, II, 사회과학 I, II	6~12학점
	학제간 융합 교육	혐오와 갈등, 인문적 사유와 예술적 상상력, 세상을 바꾼 과학적 실험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	6~12학점
	융합 프로젝트 교육	캡스톤 디자인 I, 캡스톤 디자인 II	3~6학점
	소계		15~30학점
총계			51 ~72학점

2. 기초학문 중심의 교양교육 혁신 모델

- **교양교육과정 모델 3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 모델]**
 - 자유학예 교육 구현으로 교양교육의 이상 실현 및 고등교육의 지평 확대
 -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 필요한 변혁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 변혁적 역량: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 교양교육 정상화로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자유학예 교육 기반의 융합교육 실현

3.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상생의 길

3.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상생의 길

- **기초학문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기초학문 분야가 학생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는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
- 학문후속세대의 대학원 진학 감소에 따라 기초학문 분야의 위기 가속화
- 학문후속세대가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는 것은 학위 취득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

- **기초학문, 왜 살려야 하는가?**

- 기초학문의 붕괴는 학문의 식민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문제
- 기초학문의 붕괴는 응용학문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됨
- 기초학문의 붕괴는 교양교육의 본령인 자유학예교육의 붕괴를 의미

- **기초학문의 위기, 그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핵심적 학술성과는 교양교육의 핵심적 내용
- 교양교육 강화 및 활성화는 기초학문 학문후속세대의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
- 교양교육의 강화 및 활성화는 기초학문 보호는 물론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는 길

3.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상생의 길

- 21대 대통령 정책공약집: “대학 인문 교양교육 강화”
-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혁신 지원

1. 회복·성장·행복 비전

-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 회복**
 - ①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②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 ③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 성장**
 - ④ AI등 신산업 집중육성
 - ⑤ 성장 기반 구축
 - ⑥ 공정경제
 - ⑦ 국가균형발전
 - ⑧ 기후위기대응
- 행복**
 - ⑨ 생활안정
 - ⑩ 생활비절감대책
 - ⑪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 ⑫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 ⑬ 저출생·고령화 대응
 - ⑭ 초등학생 어르신 돌봄
 - ⑮ 의료대란해결 및 의료개혁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 내 인문학 교육 강화

- 문학 철학 역사 윤리를 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인문독서 토론 수업 활성화
- '질문 중심 수업' 확대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체계 마련

■ 청소년 인문학활동 활성화

-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 독서토론대회 프로그램 등 운영
- 청소년 스스로 주제와 방법을 설계하는 '청소년 인문학연구 프로젝트' 지원

■ 대학 인문 교양교육 강화

-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 개설 및 교양과정 혁신 지원
- 인문+SI, 인문+환경, 인문+공공정책 등 융합형 인문 교양과목 확대

■ 인문학 전공 인재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인문계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인문100년장학금) 확대
- 인문계 대학원생의 연구·출판 등 학술 활동 지원 강화

3.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상생의 길

- 21대 대통령 정책공약집(2025.5.): “대학 인문 교양교육 강화”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① 학교 교육과정 내 인문학 교육 강화
- ② 청소년 인문활동 활성화
- ③ **대학 인문 교양교육 강화**
- ④ 인문학 전공 인재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및 강화 정책**

- 기관평가인증,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을 통해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정상화 유도
- 전공자율선택제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보고서
-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 모델」 설명회: 1차(2025.4.23.), 2차(2025.6.25.)
- 「교양교육과정 혁신 모델 지원 사업」(시범사업, 2026)

3. 기초학문과 교양교육, 상생의 길

-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인식 개선**

-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일 뿐 아니라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이며 도모해야 하는 관계
-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하나의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wicked problems)

-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모두 중요**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8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